목포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박차

출생부터 보육 체계적 지원나서
부모급여·보육료 등 757억 지원

목포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인구 증가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이 가득할수 있도록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관련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출생 순서에 따라 첫째 15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350만원, 넷째 450만원, 다섯째 이상 5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759건에 11억375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월부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아 이상에 월 2만원 영유아 보험 가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가 5년동안 아동명의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11월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는 아동은 모두 730명이다.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출산 친화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한해 국비와 지방비로 어린이집에 221억원, 보육료 335억원, 부모급여 82억원, 아동수당118억 등 757억원을 지원했다.

이로써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을 높이고 부모 양육부담을 덜어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공공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무상임대 협약을 추진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고 가정어린이집 1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했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야간연장 보육시설 28개소, 시간제 보육시설 5개소, 24시간 보육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3개소를 운영하여 12세 미만 미취학 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서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일에 긴급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 1개소를 운영하여 부모들에게 콘 호응을 얻고 있다.

초등생 입학축하금지원, 초·중·고교생 100원 버스 운영, 방과후자녀돌봄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실천해 가겠다"면서 "목포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적·정서적으로 아이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김장김치 나눔 활동
신흥동 새마을부녀회

목포시 신흥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조윤희)가 지난 14일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18일 목포시 신흥동 새마을부녀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부녀회원 및 목포신협,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등 30여 명이 참여해 양념과 재료 손질을 직접 준비해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총 300포기의 김장김치를 재사용이 가능한 9ℓ 용기에 포장해 저소득 취약계층 45세대에 전달했다.

올해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했으며, 재원 마련을 위한 새우젓 판매 활동과 목포신협, 주민자치회, 신흥동 자생조직 후원으로 마련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난 14일 목포시 신흥동 새마을부녀회가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다. 목포 신흥동 새마을부녀회 제공

겨울 이불 50채 전달
동명동 새마을협·부녀회

지난 15일 목포시는 동명동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에서 동절기 독거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이불 세트 50채(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겨울이불은 한파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관내 저소득층 독거어르신들과 부양의무자가 없어 혼자 사는 한파 취약계층 50세대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용성 동명동 새마을협의회장과 한성임 새마을부녀회장은 "사랑의 이불 나눔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더하게 되어 흐뭇하다"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뜻깊은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홍성채 동명동장은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신 동명동 새마을 회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불을 전달받는 분들에게 온기가 함께 전해져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만호동 지사협의체, 저소득층 김장꾸러미 지원

목포시 만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완수)가 지난 14일 연말을 맞아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꾸러미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만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저소득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천일염 200㎏과, 주방용품 40세트(시가 15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동에서는 김장을 앞둔 저소득 40세대와 경로당 2개소를 직접 방문하고 후원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만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지역특화 사업으로 '나눔의 집' 발굴, 독거노인 침구류 지원, 건어물 세트 지원, 간병비 지원 등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해왔으며, 내년에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최완수 위원장은 "나눔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웃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만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김장꾸러미 나눔 행사를 펼쳤다. 목포시 제공

김광미 만호동장은 "만호동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회원님들과 함께 동에서도 내년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연계·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신안통합추진위 청년분과 출범… '세대간 소통'
20~40대 청년 20명 참여

목포시가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안·목포 통합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분과위가 출범하면서 세대간 소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신안통합추진위는 최근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박홍률 목포시장과 문차복 시의회 의장, 시 관계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신안, 목포 양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각종 세미나, 쟁점사항 정리 및 홍보, 양 지역 주민단체의 교류, 여론조사 등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번에는 목포지역 20~40대의 젊은 청년들이 전남 서남권의 미래를 위해 목포와 신안 통합운동에 동참했다.

20명의 젊은 청년들은 미래 지역의 주인임을 인식하며, 전남 동부권에 비해 인구·소득 등 모든 면에서 뒤쳐지고 있는 전남 서부권의 현실을 직시하고 양 시·군의 젊은 세대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광욱 청년위원장은 "6번째 시도인 만큼 힘들고 험난한 도전이지만 함께 잘 사는 지역 미래를 위해 청년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민간 주도 통합을 염원하는 발걸음에 새로 위촉된 청년 위원들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 모자아트갤러리 전시관 관람객 만족도 ↑
개관 6개월 6000명 방문

문을 연 지 6개월 맞은 목포 모자아트갤러리(사진)가 지역을 대표하는 전시 문화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모자아트갤러리는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1927년 개업 당시 원도심 중심부에 자리잡은 유일한 조선인 가게로 약 100년 동안 운영한 근대역사문화 상징싱과 지역 정체성을 지닌 구 갑자옥모자점을 활용해 조성한 공간으로 지난 7월 7일 개관했다.

모자아트갤러리는 모자를 주제로 하는 전시·체험·판매 등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개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 350여점 모자 전시, 미디어아트, 라이브스케치, 모자각인체험, 개방형 수장고 등으로 조성됐다.

모자아트갤러리는 개관 후 6개월 동안 6000여명이 지역주민과 외지관광객이 방문했다.

관람객들은 전세계 모자 PC 체험, 라이브 스케치를 통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직접 고른 자수를 새겨주는 모자 판매장 등 코너를 운영해 관람객의 만족도를 상승시켰으며, 특히 故 김영자 화백 생전 착용한 모자 132여점을 기증받아 전시하여 관람객의 문화적 호응도를 이끌어냈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시 모자를 확대하고자 유명인들의 착용한 모자와 역사성이 지닌 자를 기증 및 대여받아 기획 전시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2분기 자동차세 부과·고지
목포시, 5만493건 81억원

목포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493건 8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